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제 남북한은 생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비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합니다.

01 평화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02 경제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03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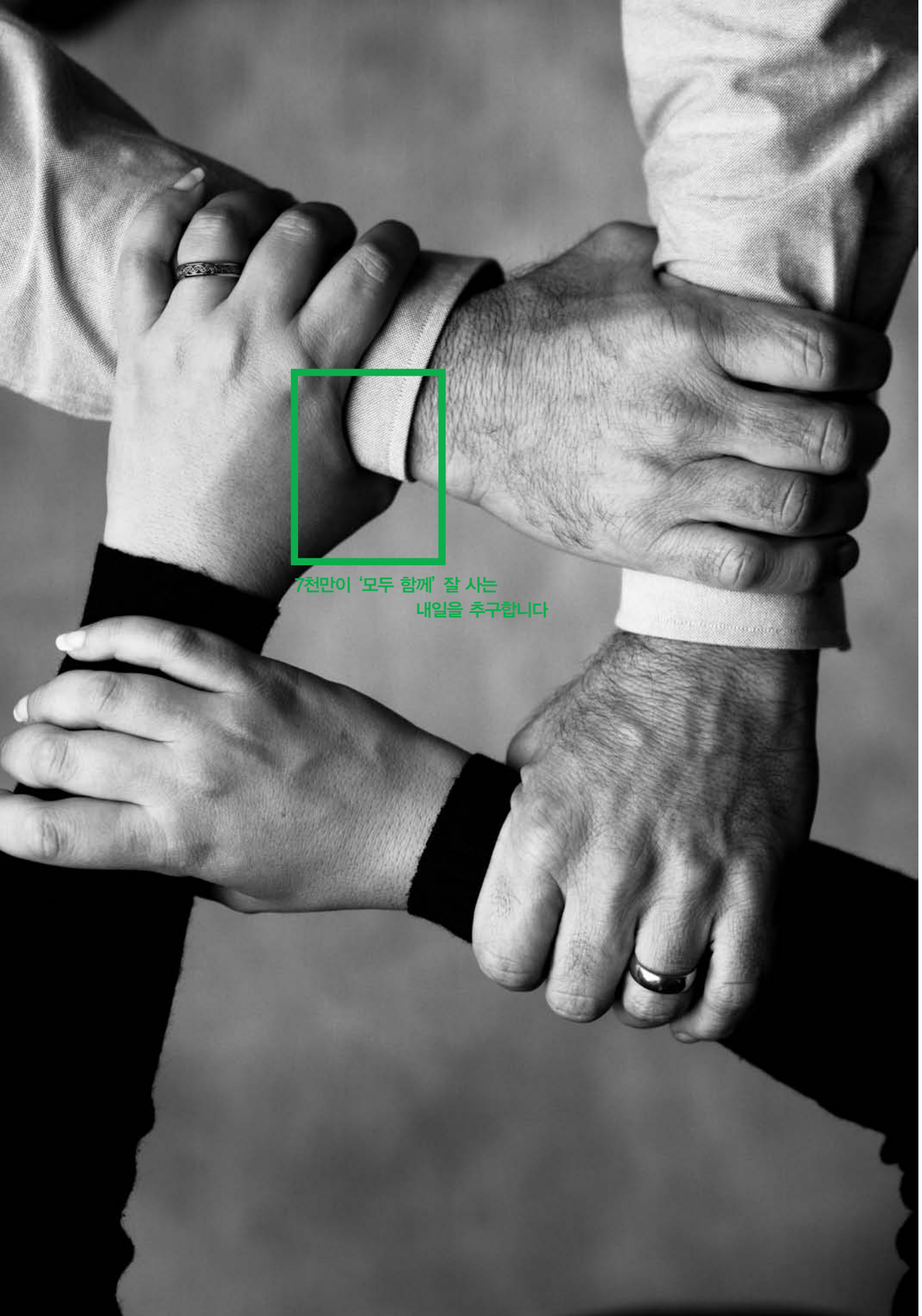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 **평화공동체**(비핵화+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경제공동체**(북한의 발전+상생의 남북경협)
- **행복공동체**(남북 7천만의 행복추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 대북정책 비전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원칙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 정책,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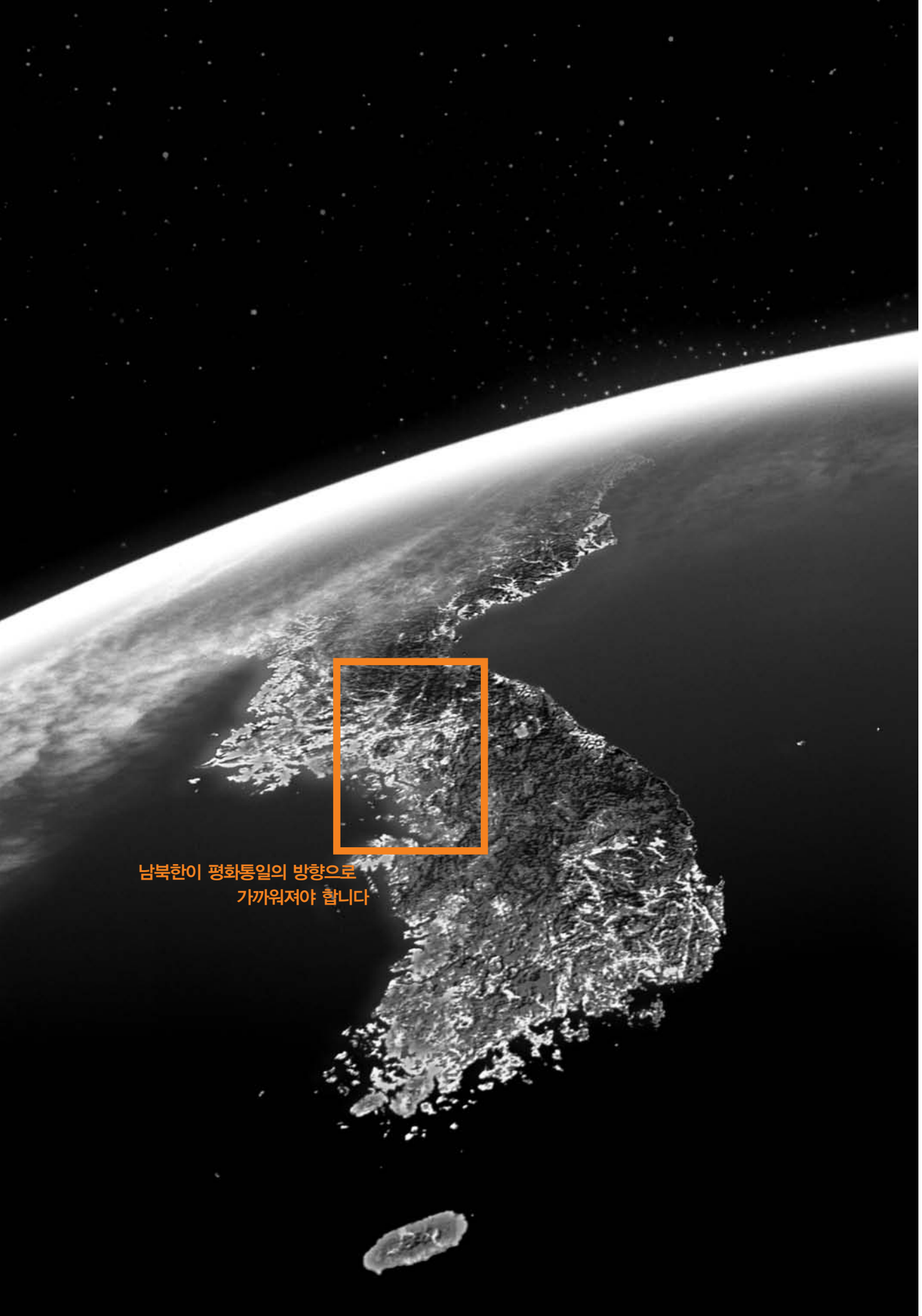
북한 핵을 조속히 폐기하고 내실있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되,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로운 진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과제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 7천만 민족을 잘 살게 하고 통일을 위한 뜻있는 협력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정상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남북회담 등을 통해서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상생의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 진행 중인 경제협력사업은 더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며 추진하겠습니다.
- 새로운 경협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비핵 · 개방 · 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 사회 · 문화교류를 내실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Win-Win하는 미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꿈꾸는 희망찬 내일입니다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www.unikorea.go.kr